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90년도 충현제자훈련

충현기도원에서
3월 22일부터 11차례 실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커다란 기폭제가 되어 왔던 충현제자훈련이 90년도를 맞아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5월 25일까지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후 6시에 11차례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 훈련에서 참가자들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찬송가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209장)을 각각 주제 성구와 주제 찬송으로 삼아 "천국일꾼"으로서의 생활 자세를 익히게 된다.

3월 22일과 23일에 이미 제1차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5월 1일과 2일에는 찬양대원들이, 3월 29일과 30일, 4월 4일과 5일, 12일과 13일, 19일과 20일, 5월 4일과 5일, 10일과 11일, 17일과 18일, 24일과 25일에는 직분자 및 일반 성도들이 훈련을 받게 된다.

이 훈련에서는 금년도 우리 교회 교육목표인 "천국 일꾼이 되자"라는 주제에 따라 모두 세 차례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에 대하여 김창수 목사, 최인근 목사, 김은태 목사가 각각 강의를 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훈련 첫째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려면"이라는 주제로 반별로 나누어 토의를 하고 다음날 그 내용을 발표



하기도 한다. 또한 반별기도회 시간에는 천국 일꾼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사랑의 집과 충현복지마을과 세계선교원의 건립을 위하여, 목회자세미나와 아시아 선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하여, 나라의 안정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그밖에 김학진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 김동열 목사가 인도하는 새벽기도회가 있으며 산상기도회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재무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임목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담임 교역자와 친숙한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종윤 위임목사는 이 훈련의 수료식 때마다 참석하여 참가자들에게 천국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고취시키고, 수료증을 수여할 것이다.

이번 90년도 충현제자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새로운 능력을 재충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⑪

이 짧은 편지를 철이 어머니께 드립니다.

너무 인색한 것 같기도 하고 인정도 없는 목사처럼 보여질 것 같기도 하여 이 같은 말씀을 드리려니 송구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어린 아기가 울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까지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기와 함께 교회에 나오시어 품에 안고 예배드리고 싶은 엄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아기만은 울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는 다며 굳이 수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시다가 드디어 울음이 폭발한 아기의 입을 틀어막느라고 진땀을 빼시는 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귀한 줄 모르겠으며,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품에 안

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상식과 교양을 갖춘 젊은 어머니께서 고집스럽게 고루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딱하게만 여겨집니다.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 탁아부를 운영하고 있음을 모르시는 바도 아닐 것이고 탁아부의 시설과 교사님들의 모습이 자기 아이를 맡기엔 미흡하다고 느끼셨다면 할 말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과감히 아기를 탁아부에 맡기시는 것이 아기와 어머니와 온 교우들을 위해서도 크게 유익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하나님을 섬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충현은 사랑과 진리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그 같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목사

위임목사 동정

제2회 충현복음심포지움에서 발제 강연

교육연구위원회 회의 주관

이종윤 위임목사는 내일(3월 26일) 1시에 갈릴리 홀에서 개최되는 제2회 충현복음심포지움에 참석한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이 주관하여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심포지움

에서 이 목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발제 강연을 한다.

한편 이 목사는 29일에는 교육연구위원회 회의의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요한전도회 제7지회 각종 법률문제 상담



요한전도회 제7지회는 지난 3월 18일 주일 IV부 예배가 끝난 후 선교관 메추라기 홀에서 변호사 최정식 집사를 초청하여 일일 법률 상담실을 열었다.

이날 회원들은 최 집사로부터 법에 관한 개론적인 설명을 들은 후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률 문제, 특히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가족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담하였다.

제3교구 가족영성훈련

제3교구는 지난 3월 16일 충현기도원에서 교구 가족 영성훈련을 가졌다.

제3교구를 지도하고 있는 김학진 목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설교를 하여 이 영성훈련에 참가한 250여 명의 교구 가족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질 수 있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기독교의 기초 교리에 관한 강의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90년도 제3차 세례식

지난 3월 21일 수요일 I부와 II부 예배시에 90년도 제3차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29명이 세례를, 30명이 학습을, 20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3명이 입교를, 3명이 개종을 했다.

24시간 기도실 마련 본당 102호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생활을 통하여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당 102호를 기도실로 구조를 변경하여 앞으로 24시간 개방하기로 하였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개방되는 이 기도실에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

오희명 권사 장학기금 1억원 기탁



지난 3월 18일 주일 저녁 7시 찬양예배시에 오희명 권사가 우리 교회 장학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내일의 지도자를 교육하는데 써달라고 1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 장학회는 보다 폭 넓은 장학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모든 피조물이 그 의미와 뜻을 갖게 됩니다.

1. 빛의 작용

첫째, 빛은 계시작용을 합니다. 빛은 밝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작용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계시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빛은 구원작용을 합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추지면 분간이 생깁니다. 참과 거짓이 확인됩니다. 이 빛이 비추지면 길이 밝혀집니다. 빛의 작용은 길을 제시하는 작용, 신학적으로 구원작용을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참된 빛 그리스도

동유럽은 분별력을 상실한 채 40여년을 을 지나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 파탄으로 대학 교수의 한달 생활비가 150불밖에 안 되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상실하면 사람들은 소경과 같이 되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생활, 도덕생활, 경제생활이 파탄에 이릅니다. 빛을 상실한 사람은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셋째, 빛은 성결작용을 합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고 어두움은 더러움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건하고 성결한 삶이 있게 됩니다.

넷째, 빛은 생명작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8:12). 생명의 빛이란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살아 있는 물체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때에만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말은 신앙의 방향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빛을 따르지 않으면 어두움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두움은 무지, 죄악, 혼돈, 불행, 멸망입니다. 빛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 요구된 증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할난하며 예수님의 모순성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은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님께서 빛이신 증거를 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증인은 나다’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증거하셨습니다.

누가 빛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빛은 빛에 의해서만 증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시며 증거하실지라도 그 증거는 자기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나타낸 유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박한 유대인들은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사변 때 다 망해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온

하면서 8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에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의식은 제사장들이 금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희생 제단 위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어 목이 마른 중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희생 제단 위에 물을 부으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첫날 밤 해가 진 후에 성전 마당에 기둥을 세워 놓고 등을 켜놓아 성전 마당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등불놀이라고 했습니다.

등을 밝히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놓은 등불을 바라 보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연상하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 참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만이 살 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을 주실 때 시내 산에도 구름이 가득했고(출 24:16,18),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올라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불만 켜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껍데기만 가지고 노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8:12). 예수님은 구름으로서가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요, 진리이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므로 우리들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둘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에는 뜨거운 열풍이 불어 낮의 기온이 섭씨 40°가 넘습니다. 그

래서 발을 땅에 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 주셨습니다.

셋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앞으로 가면 찬송을 부르면서 가다가도 구름이 멎으면 정지해야 했고 구름이 옆이나 뒤로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가는 데에는 절대 순종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이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막에는 지표(指標)가 없습니다. 지표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바람만 한 번 불면 그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들은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어디로 가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배신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름을 따라가되 성급하게 움직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지도 아니하며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참을 때는 참고 급하게 갈 때는 급하게 가고 땔 때는 땔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 빛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혹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으며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계속 행진해 나가는 증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컴퓨터

황 의 만 집사

제3의 물결로 우리에게 친근한 “엘빈 토플러”는 오늘의 사회를 정보의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후진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수천 년에 걸친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데 100년이 걸렸으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는 20년이면 충분했다.

컴퓨터는 인간이 하는 일을 도와주거나 아예 대신해 주려는 동기에서 개발되었다. 컴퓨터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자동화의 속도를 가속시켰고(OA, FA, HA 등), 통신과 융합함으로써 바야흐로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다. 컴퓨터가 각 가정에 TV처럼 보급될 날도 멀지 않았으며, 부가가치망의 발달로 각종 정보 조회, 예약 처리, 문서의 송·수신에 이용됨으로써 더욱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컴퓨터는 이제 인간의 일을 거의 대신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여가시간은 점차 연장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영적 능력을 개발하고 봉사하는데 활용치 못할 경우 회의와 권태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전산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컴퓨터에 대한 이해 부족, 둘째, 전산화에 대한 의지 부족, 셋째, 투자에 대한 성급한 기대, 넷째, 종합적이 아닌 단순 접근, 끝으로 추진 조직의 전문성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성공요인으로는 컴퓨터 교육을 통한 컴퓨터 마인드(Computer Mind) 형성, 전문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과감한 투자, 종합적인 접근, 전문요원의 확보 및 양성이라 하겠다.

우리 교회는 말세에 주의 사역을 감당

하기 위해 영적 축복을 받음으로써 팔복할 만한 부흥을 이룩해왔다. 따라서 현관리체계를 발전지향적으로 변형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지난해에 전산화에 착수하여 컴퓨터를 도입하고 개발 및 자료 입력을 진행중이다.

컴퓨터의 적용 업무로는 목회 지원, 교적 및 교구 관리, 행정의 과학화 및 표준화, 회계 및 통계 관리, 고정자산 관리, 선교종환 관리, 교육 관리, 정보센터 운영 등이다.

교회의 전산화는 업무전산화인 종적 구조 못지 않게 성도간 대화창구인 횡적 구조도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의 장점을 살려 여러가지 업무의 전산화를 근간으로 하여 전자사서함이나 전자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피차 필요를 채워 주는 공동체의 나눔을 위해 사랑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몇 사람의 전문가의 노력으로 되지 않으며, 전교인의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 무엇보다도 헌신이 요구된다.

■ 탐방 - 할리에이스

사람 낚는 어부



용산에 있는 중앙대학교 부속 병원에는 매주 화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진다. 찬양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할리에이스’이다.

할리에이스는 헬라이어 어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전도 사업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 하겠다.

현재 활동적인 회원은 약 30여 명으로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하며 화요일에는 중앙대 부속 병원에서 구원의 멜로디를 들려주고 있다. 또 교도소 전도도 아울러 하고 있으며 개척교회를 방문하여 찬양 인도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1978년에 창단되어 12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할리에이스는 조직원 지휘자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꾸준한 연습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는 데 병에 회원들의 모임인 80여 명의 옛누리 모임과 고문 장로님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영세인을 치료하던 시립병원을 위주로 전도를 하다가 원자력병원으로 그 전도 장소를 옮겼고 원자력병원이 이전한 84년 이후로는 줄곧 중앙대 부속 병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다가 할리에이스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존재와 사랑을 확인하고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환자들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할리에이스 회원들은 충현교회 교우들에게 많은 기도를 부탁하였다.

■ 만나고 싶은 충현가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강철형·왕인숙 집사 가정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가훈 아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제6교구 강철형·왕인숙 집사님 댁을 찾아보았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강철형 집사님과 왕인숙 집사님은 슬하에 대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3학년의 성희, 승우, 진수 삼형제를 두셨다.

강 집사님께서는 아들 셋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착하게 자라주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감사한 것은 삼 형제가 모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해서 무엇보다 기쁘시단다. 막내 진수군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용돈을 틈틈히 모아 십만 원이 넘는 돈을 저축하여 아버지께 양복을 마련해 드리기도 하는 효심을 보여 집사님의 마

음에 뿌듯한 기쁨을 주었다고 한다.

10년 전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충현교회 장로님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이전에 집사님이 보아왔던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신자로서 본을 보이시는 분이었던다. 그 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선뜻 교회에 나가겠다는 얘기도 못하고 속마음과는 달리 완강히 거부하시다가 사랑하는 가정을 구원받게 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상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며 이념을 가진 그 장로님의 한마디에, 완강했던 마음이 꺾이며 가족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베드로전도회 제6지회 회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강철형 집사님은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아



고등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계신다. 또 왕인숙 집사님은 루디아전도회 제6지회의 회계로 봉사하고 계신다. 두 분은 모두 주일에는 하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고 한다.

가정에서 즐겨 부르시는 찬송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좋아하신다고 한다.

올해 가족 전체기도제목은 ‘가족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는 강철형·왕인숙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칠 줄 믿는다.



본을 보이는 교회



김 차 생 장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생활필수품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뛰어들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다녀온 분에게 그곳의 인상이 어떠했느냐고 물었더니 파산한 부자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무분별한 투기로 각종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아 오름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소수의 기업가들은 기업 자금을 빼돌려서 토지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가 생겨 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성실하게 저축하며 살아가는 중산층과 봉급자들은 한숨만 더욱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기독교 실업인들이 투기와 같은 불의한 일에 얼마나 초연해 있는가 물어보아야 하겠다.

구약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도’(암5:24)라고 외쳤거니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망국병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지역감정이나 교파분열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렸고 진정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교회는 개인의 죄와 더불어 사회의 죄악상도 서슴없이 지적함으로써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유주의적이고 낙천주의적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불의가 만연했던 당시의 사회를 외면하였으나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등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목격하고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파싸움, 지역싸움을 멈추고 사회를 향하여 진정한 복음을 외쳐야 할 것이다. 인간의 욕심에서 기인하는 투기가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매일수룩 교회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을 지적하고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충현교회는 온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한다.

다음호 세기동은 오태희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간증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강한 손

이 동 성 집사



저는 어려서부터 스무살이 될 때까지 배가 고프다거나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집에서 하던 사업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갑도 없이 내 능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1977년에 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서서히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었고 거기에서 지옥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어음 막기에 급급하였고 절망 속에서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 아이, 껌 파는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도 볼 원간에 저런 신세가 되겠구나.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갈 수만 있다면 아내를 팔아도 좋다. 아니 문선명이가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며 하나님까지도 팔기를

주저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머리가 얼마나 나빴는지 나는 사업이 곧 나의 전부요, 생명이라 여겼습니다. 사업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모태 신앙을 타고난지라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는 기도원도 찾아가고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도 참석하며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나 하며 막연하게 요행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거저씨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저녁예배에 참석하고도 숙소로 돌아오며 술집으로 달려가곤 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1980년 10월에 기어이 부도가 나고 말

았습니다. 17년간 모든 정성을 쏟아오던 기업체가 하루 아침에 바람처럼 날아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흥수가 쓸고간 자리처럼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고 엄청난 부채와 절망만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인간의 바벨탑이, 장식품처럼 여겼던 하나님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없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과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천사로 하여금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우리 주위에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후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껌팔이나 구두닦이가 될 뻔했던 아이들도 서울대학

교와 예원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두 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상화된 사람의 눈치, 환경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과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헤아리고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서 등 따뜻하고 배 부르니 때때로 옛 뱀 마귀가 머리를 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유혹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막대기가 항상 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그후 지금까지 8년째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천도서

《흐르는 눈물을 슬며시 닦으며》

한국 밀알선교단 출판부에서 간행한 《흐르는 눈물을 슬며시 닦으며》는 장애인과 장애인들의 곁에서 함께 살아온 비장애인들의 글 100여 편을 모아 놓은 책이다. 여기에는 믿음의 눈으로, 희망과 사랑의 가슴으로 진솔하게 써내려간 향기 있는 글이 실려 있다.

한국 밀알선교단 (이사장 이종운 목사)에서 발행해온 《월간 밀알보》에 실렸던 글 중에서 다시 음미하고 싶은 글들을 정선하여 이 선교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출간하였는데 89년 10월 초판을 발행한 이래 2개월만에 재판을 발행했고, 90년 3월말 현재 3판 인쇄에 들어갔을 정도로 교회와 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손봉호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에 대하여 조금

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어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깊이 없고 가치 없는 책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때에 이 한편의 책을 읽음으로서 우리들의 영혼은 아름답고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 교회의 한 성도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직원들을 위해 이 책을 올해의 추천도서로 선정하고 60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약 4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교통사고, 각종 산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장애인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때에 이 책은 장애인들과 장애인 선교에 대하여,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1교구 가족수련회 은혜중에 마쳐

제1교구는 지난 3월 16일 저녁 7시에 갈릴리 홀에서 제2회 가족수련회를 가졌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수련회는, 제1교구 지도 목사인 윤용규 목사와 이종운 위임목사의 사회와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각종 행사로 진행되었다.

찬양, 교구일꾼 소개, 간증을 통해 교

구 가족들은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고, 전도회에 가입하지 않은 교우들로 하여금 가입을 독려하여 전도회의 활성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도회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의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기도의 제물을 나누고 서로 위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충현살롬경로대학 90년도 신입생 모집

우리 교회 살롬경로대학이 현재 90년도 제1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입학을 원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성도들은 오는 4월 11일(수)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본당 103호 경로대학 사무실로 나와 등록을 하면 되는데

등록금은 만원이다.

90년도 제1학기는 4월 12일에 개강하여 6월 14일까지 10주 동안 노인들의 신앙 훈련이나 취미에 따른 특별활동을 위한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상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3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성경 : 빌 2 : 6~11

요절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 : 5)

찬송 : 85, 101

제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 나서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빌 2 : 8; 히 12 : 2).

제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는 것입니다(마 28 : 18; 빌 2 : 9~11).

설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나아가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나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마지막 날에는 영광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닦아가야 할 것이다.

질문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신 21 : 22, 23; 갈 3 : 13)?
2.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고전 15 : 20~22)?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사람들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마 24 : 36)?